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언어 배우던 프놈펜을 뒤로 하고, 엇그제 깜뽕짬으로 이사 왔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월하게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정리 몇일 계속 해야할 것 같네요.

오늘 주일이 2017 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저희 가정으로서는 고아원 아이들과 드리는 첫번째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선 고아원 내에서 드린 예배는 자기 맡은 역할(사회,기도, 반주, 율동 등)을 익숙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와, 김영익/영수 선교사님께서 참 많이 수고하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익숙한 주일 사역중에 '출장 예배 서비스'(가칭)가 있습니다. 특특으로 약 20-30 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받는게 당연하고, 가진게 없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타인을 섬기고, 무언가 나눠 줄 수 있는 것은 값진 경험이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는 좋은 시간이네요.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시작기도



율동팀 (사내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



로마서 1:16 을 여러번 읽고 암송 (모두 함께)



설교하는 금촌 (김영익 선교사님 설교원고를 대독)



조금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짝 영어 교육



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컬러링



간식 나눠 주며 마무리

김영익 선교사님이 요 몇일 감기몸살 중이시네요. 지나가겠습니다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구요. 오늘은 그간 사역을 해오신 두분 선임 김영익/영수 선교사님의 주일 사역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런 미디어 작업과 별로 안 친하셔서 제가 대신 사랑하는 교회에 참고적으로 보내 드립니다. 하하. 아이들 간식 값을 대주시는 평신도 선교사님 내외분(고아원 근처에 사십니다)께도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평일의 사역을 둘러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두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사역지 위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시는데로 순종하려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심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아이들에게 뿌린 말씀입니다. 훗날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존경과 사랑으로,

정종찬 선교사 드림